

청소년 특질에 기반 한 분노,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임 미 옥
남서울대학교

송 민 경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특질,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에 따라 사회적 위축, 우울과 불안, 비행, 그리고 공격성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개인적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성차와 학년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고등학교 541명의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개인적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저변에는 성격적 특성이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분노인지 및 분노표현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는 분노에 대한 생각이 많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조건에서 부적응 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은 다시 그 사람의 적대감과 분노경험 및 공격적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상호교류적 모형(transactional model)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논란이 있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특성과 대처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처나 반응으로 기능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노과정모형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적용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없었다. 따라서 감정의 조절과 통제는 성인기 이후의 대표적인 대처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발달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표현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킨 청소년 분노관리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성차 및 발달적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교육조건들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심리적 특질, 분노,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 성차, 청소년 전·후기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1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43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Stefanek, Ollendick, Baldock, Francis, & Yaerger, 1987). 이는,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생리적, 그리고 성적 역할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발달특성 상 정서적 격렬함 또는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면서 적응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채유경, 2002).

분노감정과 분노표현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다(Burns, Bruehl, & Quartana, 2006).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폭력적이며, 분노표현 상황에서 여성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해 분노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문화에서 분노는 해결해야 할 정서보다는 오히려 억제해야 할 정서로 인식되어, 만성적인 분노억제와 문제해결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상되고 있다(이경순, 김교현, 2000). 또한 성차에 의해 여성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는 정서로 학습되며, 남성과 같은 정도로 분노를 경험함에도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분노를 수치감, 우울, 죄책감 또는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Deffenbacher & Swaim, 1999; Lavoie, Miller, Conway, & Fleet, 2001). 이러한 논리로 많은 여자청소년들은 분노억제로 음주를 더 많이 하며, 신체활동을 더 적게 한다는 보고도 있다(Musante & Treiber, 2000). 아동기에는 우울증이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공격성과 행동문제를, 여성은 사회적 위축과 불안의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Cohn,

1991). 따라서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전기와 청소년후기의 발달적인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분노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분노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간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고, 심리적인 갈등이 높아지며, 욕구불만을 겪게 되면서 분노경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Graham, Hudley, & Williams, 1992; 장휘숙, 2002). 또한 김소야자(1990)에 의하면 청소년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청소년전기에 분노를 유발시키는 자극은 놀림, 부당함, 거짓말, 빼깎, 야유 등이고, 후기청소년기의 분노자극은 주로 자신의 주장 좌절, 욕구에 대한 제한, 부당한 비난, 모욕적인 발언, 잔소리 등으로 구별하면서, 청소년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은 심리사회적 원인이 누적된 형태로 발달해가는 발달특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노의 직접적, 신체적 표현은 줄어들고 언어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하거나, 소극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전기와 후기에는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있어서 분노양상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부적응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분노와 적대감을 포함시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분노인지와 분노표현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변인들은 특성분노와 적대감이라는 성격특징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측하여, 이를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을 첫 단계의 모델들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청소년의 분노양상이 성차의 의해 그리고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를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와 발달적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교육조건들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특성분노와 적대감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특성분노. 분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노가 우리 인간생활사에서 중요한 핵심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및 Crane(1983)은 분노를 흔히 근육긴장이나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동반하는 ‘약한 짜증이나 신경질에서 강한 격노에 이르기까지, 그 강도에서 다를 수 있는 감정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Albert(1977)는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의 경험, 분노를 인식하는 신념체계라고 정의하면서 그 결과 혹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구별하면서 신념체계는 분노를 자극하는 내면적인 반응이며, 분노는 인식적 혹은 사고적인 요소(cognitive or thinking component)에 의해서 절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의 분노원인은 정서 속에서 부당하다

고 지각하는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연합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며, 또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만성적 분노(chronic anger)는 교감-부신-수질체계에 악영향을 주며, 타인에 대해 냉소적인 불신(cynical mistrust), 적대감으로 표현되며 신경증, 사회적 위축, 우울 및 불안,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Mueller, Grunbaum, & Labarthe, 2001).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분노경험은 크게 상태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로 구분할 수 있다. 상태분노란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할 수 있는 정서 상태로, 분노의 경험이 일시적이고,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근육 긴장 및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면서 경증의 초조함이나 흥분에서부터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주관적 감정이다(Crane, 1983). 반면, 특성분노는 개인이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와 같은 분노경험에 대한 기질적인 차이이며(Forgays et al., 1977), 시간에 상관없이 평소의 화난 상태, 짜증난 상태, 강하게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가에 관한 개인의 분노경향성이다(은혜정, 2010; 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 특히 성격특질인 특성분노가 분노표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철호(2010)에 의하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며, 경험된 분노는 더 역기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빈번하게 분노유발 상황을 높게 지각하여 상태분노로 반응하기 쉽다고 하였다. 특성분노가 상승하여 상태분노가 되면

그 개인은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고 흥분이 수반되어 일시적으로 성난 상태가 되는 것이다 (Reboussin, Levers, & Brunsterrer, 1966). 또한 특성분노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 억제와 분노표출을 많이 하면서 분노조절은 적게 나타나고, 교우관계 및 학교수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다고 한다(서지영, 안창일, 1977). 윤지혜, 현명호, 김인석(2004)은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인지적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공격성, 위협을 감지할 태세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쉽게 적대자로 지각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폭력의 예언변인으로 특성분노가 있고, 일반 청소년보다 성폭행, 살인자들이 상태분노와 특성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yers, Monaco, 2000).

Wilkowski와 Robinson(2008)에 의하면 통제와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특성분노를 가진 사람이 적대적 상황(hostile situational input: provocation or insult)에 더 잘 반응하고, 특성분노가 높은 개인은 적대적 해석편향을 하기 쉽고, 이 해석편향이 반추적 주의, 분노와 공격적 충동의 자동적 과정을 촉발한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와 적대적 사고를 통제하는 인지적 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적대감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미덕에 대한 신뢰 부족과 다른 사람이 대개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루어진 태도나 성격특질이다. 특성분노가 낮은 개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적대적 사고를 더 잘 통제하고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적대적인 사고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인지적 과정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의 변화가 빠르고, 강하여(Silk, Steinberg, & Morris, 2003)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인지적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이고 과장되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위협대상자를 쉽게 적대자로 지각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의 분노조절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는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분노와 관련된 것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이봉은, 2010).

최근에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가 분노유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동적 사고로 규정되면서 그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차적 분노사고(무시, 실망감)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이차적 분노사고(타인비난, 보복, 무기력, 분노통제와 건설적 대처)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고로 흔히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및 심리상태로 이루어진다(서수균, 2009).

특히, 논란이 있는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로 구분되고 분노유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동적 과정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주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며, 곧 이어서 발생하는 자동적인 사고로서 흔히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심리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와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사회적인 지지로 이어지

면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관계는 일차적 분노사고→이차적 분노사고→사회적지지→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직선적인 이중매개(linear dual mediation)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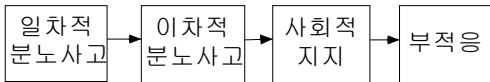


그림 1. 일차적 분노사고와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사고와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모형

분노유발과정의 모델을 제시한 서수균과 권석만(2005a)에 의하면 유발사건→일차적 분노사고(일차평가, 의미부여)→이차적 분노사고(이차평가, 이차해석)→분노경험을 거쳐게 되고, 이 단계들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라고 하였다. 첫 단계인 유발사건은 사건경험 직후에 주로 상황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며, 평가가 주가 되는 것으로 불편감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분노를 일으킨다.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수록 분노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분화되며 두 번째 단계의 평가는 대처자원이나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분화되고 강도가 한층 높아진 분노를 일으킨다. 두 단계의 평가를 거치면서, 미분화된 불편감이나 약한 분노감은 정교화 되고 증폭되어서 강한 분노나 격노에 이르게 된다. 일차평가에서 개인의 목표가 방해받는다 고 지각하면 개인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이차평가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타인의 탓이면 분노는 타인을 향하고 반대로 자신의 탓이라고 판단되면 분노는 자신을 향한다고 하였다. Beck(1976)은 특정한 종류의 사고, 인지적 평가는 초기의 감정유발 단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노모형의 요소에 작용하게 되며, 고영인(1994)은 분노유발사건과 개인의 분노경험 사이에는 인지적 중재변인이 있으며, 이 인지나 사고는 다른 요소사이에도 긴밀한 작용을 한다 (Chae, 2001; 장선희, 이미애, 2010).

한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분노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분노표현방식이나 억제 등을 학습하여 생겨난 반응이다. 자녀는 부모의 분노표현방식이나 분노에 대한 반응을 학습하고(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또 분노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대한 학습된 방어로 보고 있다(Theresa, 1986). 이 외에도 청소년기의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분노는 주로 청소년의 낮은 자존심, 불안정한 가정 및 학교환경,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전소현, 권호인 및 권정혜(2010)는 청소년은 기성세대가 정해 놓은 규칙에 저항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개인특성,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 불만을 갖고, 분노유발 후 분노가 더욱 증가하고, 긍정적 기분이 감소하는 감정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적대감. 적대감(hostility)은 생명체를 가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Williams, Barefoot 및 Shekelle(1985)은 적대감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미덕에 대한 신뢰 부족과 다른 사람이 대개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루어

어진 태도나 성격특질로 보았다. Spielberger 등 (1985)은 분노, 적개심,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개념에서 분노는 정서요인으로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적대감은 인지요인 또는 태도이고, 그리고 공격성은 행동요인으로 규정할 바 있다. Smith(1992)는 적대감은 불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분개의 태도에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에 집착할 때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적대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에게 지지적인 환경에서조차 이를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며, 그 환경 속에서 다시 분노와 공격성을 포함한 적대감을 강화시킨다(Smith, 1994). 적개심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과 낮은 사회적 지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erkins, Chesney, & Hughets, 1991).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적대감을 정서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태도나 신념을 반영하는 성격특질로 간주하고, 적대적인 태도가 강한 청소년이 적대감이 낮은 청소년보다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을 더욱 경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인 변인으로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개입 프로그램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사회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 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Hobeman, 1983).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 Samivalli(2001)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이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긍정적 정서, 자신감, 자기통제, 자기만족을 증가시켜 적응을 촉진시킨다. 박지원(1985)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 개인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는 물질적 지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평가적 지지를 구분하면서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개인의 총체적인 느낌과 타인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 Achenbach(1991)은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변인으로 사회적 위축, 우울과 불안, 비행, 그리고 공격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대인불안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Wanlass & Prinz, 1982),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조절문제를 일으키고(Roff, Sells, & Golden, 1972), 공격적인 유형보다 더 많은 집단따돌림으로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oulton & Smith, 1994). Larson(1992)은 또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좌절상황 속에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

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Kriss, Koch 및 Lindholm(1988)에 의하면 우울한 청소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산만하며, 자기 파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분노는 우울, 불안,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가 불안을 촉발하고 불안이 다시 우울을 유발한다.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로 인해 자살위험성이 높다(Zaitsoff, Geller, & Srikaneswaran, 2002). 윤경희와 배정규(2009)에 의하면 우울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무력감과 관련이 있고,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무력한 사고를 하는 우울성향 청소년들은 분노상황에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때문에 무력한 사고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Epperson(1996)은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분노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려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안(anxiety)은 근심, 걱정 및 두려움과 공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불안한 것에 대한 기대와 내외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반영지수를 나타내는 불안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이 높은 사람들은 공포 및 회피동기가 높기 때문에(김청송, 2000), 분노의 표출보다는 분노억압 쪽으로 편중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공포와 불안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비행행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한 통제가 다루어져야 하고, 비행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대인관계 적응을 위해 분노를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tefanek et al., 1987).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학업성적, 진로의 불확실 등으로 인해 우려할만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능력과 대처자원을 초과하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목표를 수정하는 탄력적인 대응력도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Steinhausen & Winkler, 2001; 이연수, 김홍순, 김청송, 2010), 분노감정이 유발되기 쉽다. 임소영(2000)은 비행청소년은 분노문제에 취약한 집단으로, 분노를 대처하는 능력도 미숙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분노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비행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좌절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를 부정적인 방식인 폭력이나 약물남용 등으로 해소하려고도 한다(Crag & Eric, 1997).

Berkowitz(1993)에 의하면 공격성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도적인 해를 가하려는 목적지향적인 반응이며, 다른 사람을 지배 또는 통제하려는 욕구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Dodge와 Coie(1987)은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위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한 분노반응 및 방어적인 성격의 공격성이고, 후자는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려는 수단적 성격의 공격성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정경택(2003)에 의하면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생활공간인 가정, 학교 등에서 중대한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노인지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전기와 후기 비교

청소년전기와 후기에는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Graham, Hudley, & Williams, 1992). Anderson과 Bushman(2002)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 신체적 표현은 줄어들고, 언어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하거나, 소극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아져, 청소년기에 이르면 분노에 대한 반응양식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2009)은 중학생집단이 고등학생집단에 비해 분노억제를 많이 사용하였고, 분노통제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집단과 중학교집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은 분류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청소년전기와 후기에는 분노인지와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장휘숙, 2002; 김소야자, 1990). 초기청소년기는 11세에서 14세로 이 시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반사회성 등의 만성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Cicchetti와 Toth(1991)은 초기청소년의 강렬한 분노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ed Problems)로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외현화 문제(externalized problems)인 비행은 청소년기 초반에 시작한 조기비행자(early delinquent)일 경우, 만성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후기에 비행을 시작한 후기비행자(late delinquent)의 경우에는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terson, Capaldi & Bank, 1989). 류창현과 이수정(2009)에 의하면, 분노정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기의 분노는 이점보다는 결점 쪽으로 편중되고, 폭행, 언어폭력, 소외(왕따), 반사회성 성격 등의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과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차 비교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는 일반적인 취약성요인과 함께 성차(gender differences)가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박경순, 1998; 이기숙, 박소영, 2000). 대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폭력적이며, 분노표현 상황에서 여성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분노조절과 분노통제에 문제가 있으면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Harbin, 2000). 아동기에는 우울증이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자, 1994; Santrock, 1996). 분노표현에 있어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 Deffenbacher와 Swaim(1999)은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 모욕을 더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자의 경우는 공격성과 행동문제를, 여성은 사회적 위축과 불안을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Cohn, 1991). 특히, 남자와 여자청소년들도 특정경로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Binder, 1988; Arbunthnot, Gordon, & Jurkovic, 1987). 박진아(2001)에 의하면 남학생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여학생집단에서는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중학생집단에서는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그리고 고등학생집단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의 양상도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Stefanek et al., 1987).

연구모형. 분노를 일으키는 개인적인 특질 (traits)은 심리적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 혹은 민감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특질을 특성분노와 적대감으로 가정하면서(Martin, Watson, & Wan, 2000; Smith, 199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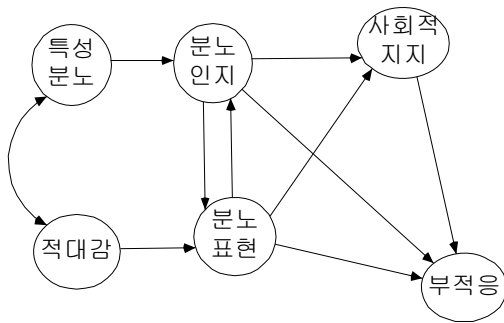


그림 2.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의 가설적 확장모형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 O중학교와 경기도에 위치한 남녀공학 D고등학교에 재학하는 570명의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확인한 다변량 극단값 2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Maha's d=4이상), 최종 5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피검자들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분노경험의 측정. 청소년의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분노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경험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STAXI-K)를 사용하였다. 분노경험의 하위변인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측정하며, 각각의 하위변인은 10문항으로 '거의 전혀 아니다'(0 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의 내적합치도는 상태분노가 .89, 특성분노가 .82이며,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상태분노가 .90, 특성분노가 .85였다.

표 1. 성별/학교별 구분 및 대상인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성별	남자	158	124	282
	여자	117	142	259
	계	275	266	541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분노표현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방식의 하위변인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측정하는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거의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3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분노표출 .64, 분노억제 .74, 분노통제 .84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분노표출 .83, 분노억제 .81, 분노통제 .8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서 0점(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1점(약간 일치한다), 2점(어느 정도 일치한다), 3점(상당히 일치 한다), 4점(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로 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11문항의 예민성과 9문항의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과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2, .8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서 0점(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1점(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2점(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3점(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4점(항상 이런 생각을 한

다)로 되어 있다.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거나 정신적 혹은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총19문항의 타인 비난 보복요인, 분노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하는 총 7문항의 무기력, 분노감정을 의식하고 통제하고 분노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나 문제해결적인 노력을 취하는 총 8문항의 분노통제와 건설적 대처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6, .78, 그리고 .75로 보고되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유진(2008)의 연구에서는 .94, .84, 그리고 .7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9, .87, .8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분노촉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Novaco(1944)가 개발한 Novaco 분노검사(Novaco Anger Scale; NAS)를 남궁희승(199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영역, 각성영역,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6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인지영역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영역은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단서에 선택적으로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측면을 측정하는 주의와 초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상황들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과도하게 위협을 지각하는 의심, 일단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고 그 분노자극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는 측면을 측정하는 반추, 그리고 타인을 믿지 않고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적대적 태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3점 척도로서 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때때로 그렇다), 2점(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1, .84, .82,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황윤경(1996)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되어 있다. 하위차원인 물질적 지지를 측정하는 20번에서 25번 문항 중 21번 문항은 타 문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의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92, 평가적 지지 .80, 정보적 지지 .86, 물질적 지지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는 정서적 지지 .95, 평가적 지지 .93, 정보적 지지 .94, 물질적 지지 .89였다.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광일, 원호택, 김재환(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SCL-90)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9개 증상차원의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상태가 심함을 의미한다. 9개의 증상차원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과 불안증,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그리고 정신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역시 .9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적대감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의 청소년심리 정서적 문제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을 한국판으로 제작한 오경자와 이해련(1990)의 청소년용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는 심리사회적 적응이 문제행동증후군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고, 문제행동증후군으로서 9개의 하위범주(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제감문제)를 제시하였다. 이해영(2007)에서는 9개의 하위범주 가운데 심리정서문제로서 사회적 위축(7문항)과 우울과 불안(14문항)의 하위척도를, 행동문제로서 비행(11문항)과 공격성(19문항)의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 가끔 그런 편이다(1), 자주 있거나 정도가 심하다(2)의 3점 척도로 문항의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사회적 위축이 .68, 우울과 불안이 .86, 비행이 .66, 공격성이 .8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조사의 실시기간은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였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의 학교에서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였다.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미리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가급적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주의시키고, 설문작성이 끝나

면 끝바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5.0과 AMOS 7.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설적 모델의 적합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모델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χ^2 , 표준 카이제곱치(Q),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준거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모델수정과 모델비교 절차를 거쳤으며 이 단계에서는 표준부합치를 수정한 간명성부합치(PFI)와 비교부합치(CF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와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단계로 일차적인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의 Sobel검증을 시행하고, 2단계로 이차적인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 → 부적응의 Sobel검증을 시행하여 모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와 청소년전기인 중학생과 후기인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분노-부적응 과정모형을 적용했을 경우 특정경로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비교방식은 경로동일성 가정을 사용하는 기법을 채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대처와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 →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직선적인 이중매개(linear dual mediation)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직선적인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매개효과가 연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단계로 일차적인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의 Sobel검증을 시행하고, 2단계로 이차적인 분노사고 → 사회적 지지 → 부적응의 Sobel검증을 시행하여 모두 매개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중매개모형의 Sobel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표 2>에서 나타난 바대로, Sobel 검증에서 1단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특성과 대처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이

표 2. 이차적 분노사고와 사회적지지의 이중매개모형결과

변수 간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a	추정치 (표준오차) ^b	Z _{ab}
일차적 분노사고 →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	.15(.05)	.16(.07)	1.1818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지지 → 심리적 부적응	.19(.03)	.20(.03)	4.5916***

*** $p < .001$

차적 분노사고는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한 상관($r=.27, p<.001$)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모델에서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이중매개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직선적인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매개효과가 연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특성과 대처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적인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분노인지(반추, 적대적 태도), 분노표현(억압, 표출),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내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들과는 물질지지를 제외하

고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분노감정은 주의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의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부적응의 양상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재화 증상인 불안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를 모두 포함시킨 특질에 기반한 분노-부적응 과정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개인적 특질이 추가되어 확장된 이 모형은 자유도 80, 카이제곱 188.266, GFI=.908, AGFI=.905, CFI=.911, PFI=.693, RMSEA=.080으로 나타나 우수한 모델이었다.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은 <그림 3>에서 제시되어 있는 등지상관관계(nested-relationship)가 아니기 때문에 χ^2 값이나 CFI(비교부합치)를 이용한 모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초모형의 AIC와 BIC값이 각각 273.126과

표 3. 특질, 분노, 부적응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N=54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반추	1											
2.적대적 태도	.42*	1										
3.억압	.27*	.16*	1									
4.표출	.22*	.11*	.56*	1								
5.정서지지	-.18*	-.26*	-.33*	-.23*	1							
6.평가지지	-.24*	-.29*	-.27*	-.15*	.48*	1						
7.정보지지	-.09*	.10	.11	.08	.25*	.23*	1					
8.물질지지	.06	.04	.08	.21*	.17*	.19*	.33*	1				
9.위축	.17*	.10	.33*	.10	-.33*	-.26*	-.31*	-.16*	1			
10.우울	.06	.19	.29*	.26*	-.42*	-.22*	-.25*	-.29*	.44*	1		
11.불안	.14*	.33*	.31*	.25*	-.15*	-.18*	-.14*	-.15*	.36*	.42*	1	
12.비행	-.08	.22*	.11*	.34*	-.11*	-.27*	-.20	-.08	.09*	.14*	.22*	1
13.공격	.11*	.24	.09	.17*	-.17*	-.16*	-.13*	-.11*	.13*	.17*	.22*	.10

* $p < .05$

255.329인데 비해 확장모형이 221.145와 234.627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이 분노의 양상을 증폭시키는 안정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저변에는 성격적 특성이 기초하고 있음(Smits & Kuppens, 2005)을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대감의 수준이 낮은 것을 보호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특성분노가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적대감 수준을 역수로 취해 사회적 지지와 함께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후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가 분노-부적응 확장모형보다 우수하지 못했다(자유도 80, 카이자승 202.127, GFI=.887, AGFI=.866, CFI=.888, PFI=.621, RMSEA=.105). 따라서 적대감이 높은 경우에는 분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적대감이 낮다고 해서 분노를 감소시키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대감과 부적응과의 관

계는 일차원 양극모형이 아니라, 이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 분노양상을 증폭시키는 안정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저변에는 성격적 특성이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전기와 후기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여준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모형에서는 자유도 80, 카이자승 188.266, CFI=.911 인데 비해,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약모형이 자유도 81, 카이자승 194.088, CFI=.900로 나타났다. 자유도 1이 감소함과 동시에 χ^2 값이 5.822 변화가 있다($p < .05$). 이에 대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된 수정 모형을 적용한 결과, .05수준에서 3.84이상 감소해야 경로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모델과 제약모델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간명한 모델인 제약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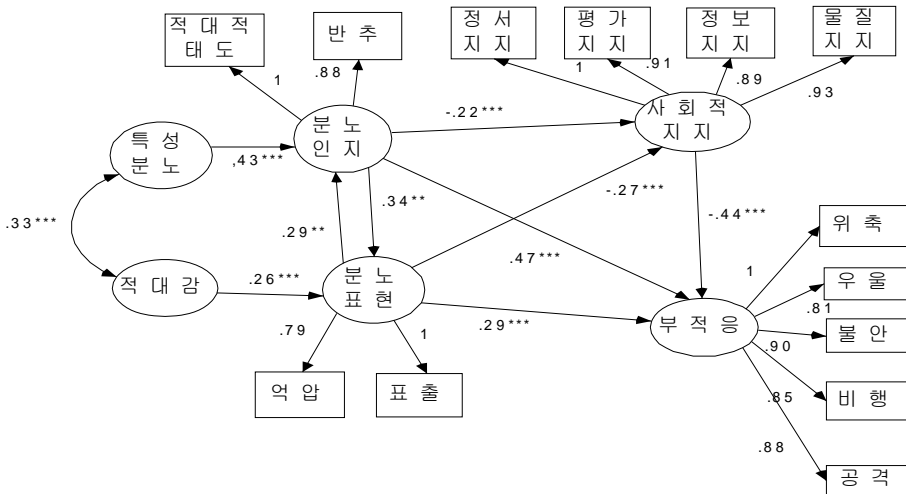


그림 3.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모형

인지와 분노표현 요인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제약 가정을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적용했을 때, 두 집단 모두 차이가 있다는 모형보다 우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노인지와 분노표현, 심리적 부적응 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원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나머지 경로

에서도 유의성이 변화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것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분노의 사고와 표현의 감정 양상이 명확히 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차에 의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표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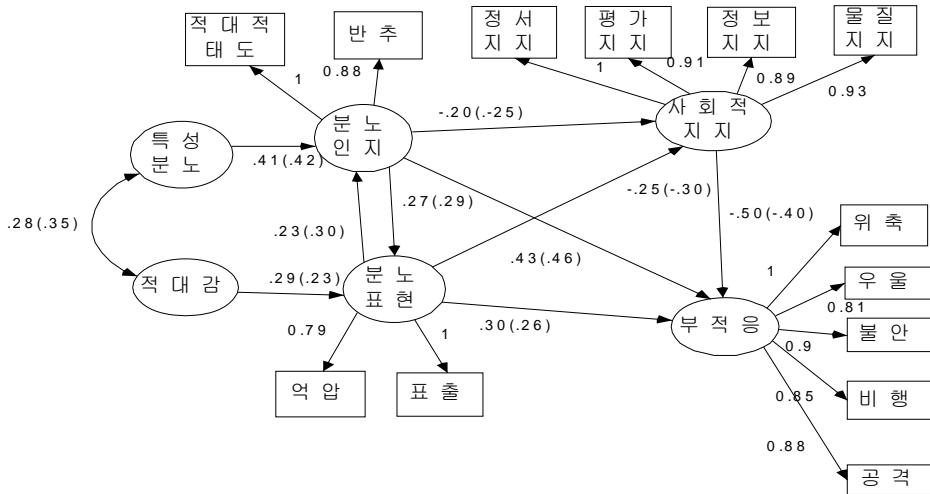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 전·후기에 적용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괄호 안은 고등학생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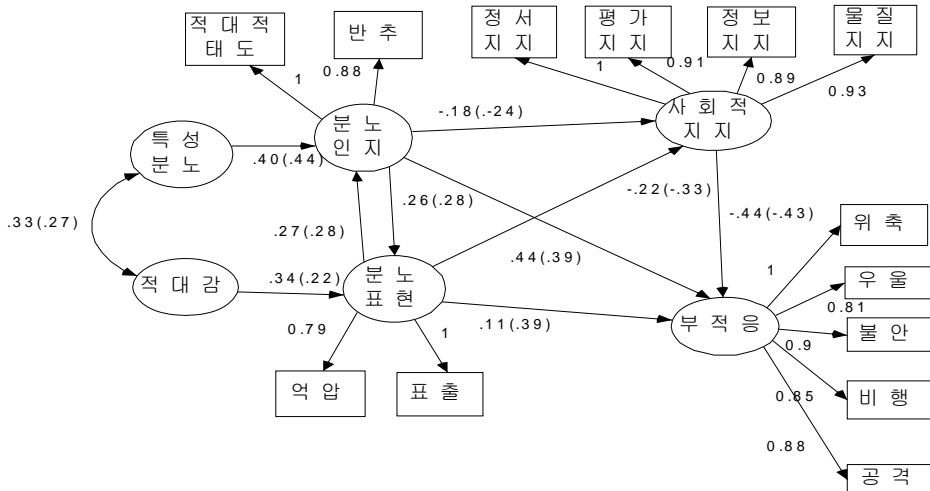


그림 5. 성차를 적용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괄호 안은 여자의 경로)

부적응에 끼치는 경로의 유의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11, p>.05$), 여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9, p<.05$). <그림 3>에서 제시된 모델에서는 자유도 80, 카이제곱 188.266, CFI=.911 인데 비해, <그림 5>에서 제시된 제약모델에서는 자유도 81, 카이제곱 195.499, CFI=.900이었다. 자유도 1이 감소함과 동시에 χ^2 값이 7.233 변화가 있었다($p<.05$). $\alpha=.05$ 수준에서 3.84이상 감소해야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모델과 제약모델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표현과 심리적 부적응 양상 간에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원래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감정의 분출과 표현이 여자의 경우보다 극단적인 부적응의 지표임을 시사하는 결과(Bilodeau, 1992)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청소년기의 분노조절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는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분노와 관련된 것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봉은, 2010).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하여, 일차적 분노사고(무시, 실망감)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고, 이차적 분노사고(타인비난 보복, 무기력, 분노통제와 건설적 대처)는 흔히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및 심리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서수균, 2009). 특히, 특성분노와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경험이나 좌절 상황에서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경험에 대해 일시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상태분노,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나타내는 특성분노, 그리고 적대감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떠한 분노표현양식을 드러내면서 심리적 부적응을 증가시키는지 포괄적인 과정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동적 반응패턴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처와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할 때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이차적인 분노사고는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전형적으로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직선적인 이중매개(linear dual mediation)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직선적인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매개효과가 연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특성과 대처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차적 분노사고는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한 상관($r=.27, p<.001$)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처나 반응으로 기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과는 물질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노

감정은 주의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인지와 분노표현의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부적응의 양상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재화 증상인 불안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개인적 특질에 기반 한 분노-부적응 확장모형은 보다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이 분노의 양상을 증폭시키는 안정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저변에는 성격적 특성이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Sobel 검증과 Aroian 검증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분노인지와 심리적 부적응을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노에 대한 생각이 많고, 이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조건에서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논리에 의하면, 분노표현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조건에서 청소년들의 부적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을 주변의 친밀한 개인들이 지지하지 않을 때, 일탈적인 부적응 행동이 제지받지 않고,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과정모형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적용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가 없었다. 따라서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과 이에 따른 부적응 양상은 성인기 이전에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의 조절과 통제는 성인기 이후의 대표적인 대처 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에(Steinhausen & Winkler, 2001) 청소년기에는 아직 발달적인 변화를 보이지

는 않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표현이 부적응에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경로는 여자에게 선택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9, p<.05$). 이것은 적극적인 감정의 분출과 표현이 여자의 경우 보다 극단적인 부적응의 지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과도한 감정표현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하기 때문(Parkhurst, & Asher, 1992)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 과제를 제시하자면, 본 연구는 가족과 교우관계 등 우울 및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결과를 해석할 때 제한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격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의 관점에서 모형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요인을 정서, 평가, 정보, 물질로 세분화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에도 주요한 발달과정이나 과급력이 큰 선택 상황에서는 친구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Rumberger & Thomas, 2000; Trusty & Dooley-Dickey, 1993)이 확인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황이나 학교 내 교사의 권위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추후연구에서는 이 요인들을 구분한 모델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노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정화의 효과 등을 모형화한다면 치료적 유용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역시 자기보고식 자료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비행과 같이 부정적인 특징

을 회상하게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는 욕구 등으로 기억의 왜곡이 심각할 수 있다 (Chae, 2001). 개인이 속한 집단적인 특성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oyen, 1991) 집단에 따라 문 제행동을 다르게 정의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추후연구에서는 이 모델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인 지지를 포함시킨 청소년 분노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성차 및 발달적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교육조건 들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소야자 (1990). 도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격, 사회문화적 문제 경험 정도와 상담 및 교육의 필요 정도. *간호학논집*, 162, 1-10.
- 김청송 (2010). 불안민감성이 청소년의 정동평가와 유해 자극역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11-723.
- 류창현, 이수정 (2009).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분노 감소를 위한 웃음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55-79.
- 박경순 (1998).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5a). 분노사고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서수균, 권석만 (2005b).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 서수균, 권석만 (2005c). 분노조절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495-509.
- 서수균 (2009).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 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695-708.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13-227.
- 오경자, 이혜련 (1990). 한국이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 1: 4, 5세, 6세, 11세, 12, 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이기숙, 박소영 (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9), 93-106.
- 이봉은 (2010). 인지 행동적 집단미술치료가 분노억제 청소년의 자아상, 정서표현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25(0), 110-137.
- 이연수, 김홍순, 김청송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탈진과의 관계에서 대처와 완벽주의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7(9), 173-196.
-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순, 김교현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 이철호 (2010). 분노반추, 자기통제 및 용서가 분노 경험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지혜, 현명호, 김인석 (2004). 특성분노와 의도-모호성이 타인비난과 운전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9(3), 713-728.
- 임소영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혜정 (2010). 비합리적 신념, 특성분노, 분노표현, 성역할정체감과 교사소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 배정규 (2009). 편집과 우울성향 간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2-253.
- 전점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60-78.
- 장선희, 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휘숙 (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81-96.
- 진소현, 권호인, 권정혜 (2010). 분노에 대한 반추, 주의 분산 및 긍정적 재평가가 기분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367-386.
- 정은희, 송현주 (2010).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2-229.
- 채유경 (2001). 청소년의 분노 표현 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서울시 중학교, 인문계 고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TRF profile*, Burlington, C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bert, E. (1977).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Because*. New Jersey: Citadel Press.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Arbunthnot, J., Gordon, D., & Jurkovic, G. (1987). Personality, in Quay, H.,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John Wiley & son.
-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5, 1247-1265.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inder, A. (1988). Juvenile delinquenc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253-282.
- Bi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oivin, M., Poulin, F., & Vitaro, F. (1994). Depressed mood an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483-498.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29.
- Burns, J. W., Bruehl, S., & Quartana, P. J. (2006). Anger management style and hostility among patients with chronic pain: effects on symptom-specific physiological reactivity during anger-and sadness-recall interviews. *Psychosomatic medicine*, 68, 786-793.
- Chae, Y. K. (2001). *Model testing for anger*

- expression style and anger control*. Chennam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Cicchetti, D., & Toth, S. L. (1991).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isfunction. In I. A. Greenberg(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319-324).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Cohen. S., & Hobe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52-266.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3. New Jersey: LEA, 119-187.
-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61-69.
-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 Dodge, K. A., &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58-165.
- Forgays, D. G., Forgays, D. K., & Spielberger, C. D. (1997). Factor structure of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3), 497-507.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e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Harbin, J. T. (2000). *Beyond anger a guide for men*. New York: Marlowe & Company.
- Huesmann, L. R., & Eron, L. D., &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Kriss, M. R., Koch, M., & Lindholm, L. (1988). Recurrent depression in adolescents: A follow 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y*, 27, 49-54.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2). 101-117.
- Lavoie, K. L., Miller, S. B., Conway, M., & Fleet, R. P. (2001). Anger, negative emotions,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interpersonal conflict in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 503-512.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987.
- Musante, L., & Treiber, F.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coping styles and lifestyle behaviors in teenag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63-68.
- Mueller, W. H., Grunbaum, A., & Labarthe, D. R. (2001). Anger expression, Body fat, and Blood pressure in adolescents: Project Heart

- Beat.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13, 531-538.
- Myers, W. C., & Monaco, L. (2000). Anger experience, style of anger expression,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 698-701.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man(Ed.),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atterson, G. R., Capaldi, F., & Bank, L. (1989).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on delinquency. In D.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childhood aggression(pp.139-168)*.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Perkins, L., Chesney, M., & Hughets, G. (1991). Cook-Medley Hostility Scale and subsets: Relationships to demographic and psycho social characteristics in young adults in the CARDIA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53, 36-49.
- Reboussin, D. M., Levers C., & Brunsterrer, R. (1966). First-time suicide attempters, repeat attempters, and previous attempters on an adolescent psychiatry uni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631-639.
- Roff, M., Sells, S. B., & Golden, M. M. (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umberger, R. W., & Thomas, S. L. (2000). The distribution of dropout and turnover rates among urban and suburban high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73, 39-67.
- Sa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Santrock, J. W. (1996). *Child Development*. Madison : Brown Benchmark.
- Scherer, K. R., & Tannenbaum, P. H. (1986). Emotion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A survey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 10, 295-314.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mith, T. W. (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11(3), 139-150.
- Smith, T. W. (1994). Concept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anger, hostility, and health.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hea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trait anger. In J. N. Buctcher & C. D. Spielberger(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pp. 161-190)*.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pp. 203-222). New York: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Johnson, X. H., Russell, S. F., Cranc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o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pp.5-30). New York: Hemisphere.
- Stefanek, M. E., Ollendick, T. H., Baldock, W. P., Francis, G., & Yaeger, N. J. (1987). Self-statements in aggressive with drawn and popular 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2), 229-239.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59-280.
- Theresa, M. F. (1986). "How to Deal With Overt Agg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8*(1), 79-83.
- Trusty, J., & Dooley-Dickey, K. (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6*(4), 232-242.
- Wanlass, R. L., & Prinz, R. J. (1982). Methodological issues in conceptualizing and treating childhood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2*, 39-55.
- Weiner, B. (1991). Metaphors in motivation and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46*(9), 921-930.
- Williams, R. B., Barefoot, J. C., & Shekelle, R. B. (1985). The health consequences of hostility.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173-195*. Washington, DC: Hemisphere.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08). The Cognitive Basis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An Integra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1), 3-21.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m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원고접수일: 2012년 4월 30일

게재결정일: 2012년 6월 2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 Vol. 17, No. 2, 501 - 523

A Study of Anger,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Maladaptation Based on Traits of Adolescents

Ihm Mi-OK
Nanseoul University

Song Minkyung
Department of Youth Studies

Kim Chung-So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traits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anger and maladaptation of adolescents through model specif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In the study, the sample of 54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82 men and 259 women) completed STAI, Anger Experience Scale, Anger Thinking Scale, Novaco Anger Scale, SCL-90, K-YSR, Social Support Scale. In this study, path analysis showe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failure of anger control and maladaptation. Social support would be mediated with adolescents' maladaptation by failure of anger control. If anger expression of adolescents did not be accepted by significant others, the maladaptation of the adolescents would be more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model added to paths from hostility trait to anger fitted well. Furthermore, the research outcomes revealed that gender difference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anger control, and it suggested roles of combination of gender and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maladaptation.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nger control. It was discussed with trait-environment fitted that tailored-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maladaptation were developed.

Keywords: Maladaptation, Social support, Anger, Gender difference, Developmental stage